#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17호 2008.1.24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고흥길/편집인:조영기/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전화:788-2371~6. 788-3081~6. FAX:788-3571


## 이사장 신년사

## 「 역사는 흐른다 」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기회의 무자년(戊子年)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회원님들 모두에게 2008년 내내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무자년이 선물하는 풍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세밑에 문득 한국의 속기와 대한속기협회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생각으로는 2005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의 3년을 돌아보자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쌍팔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쌍팔년을 쉽게 1988년이라고 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에겐 대한속기협회의 전신인 대한속기학술협회가 창립된 1955년(단기 4288년)이 바로 이 말의 어원이 되는 해입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998년에는 「韓國速記 50年史」가 편찬되었습니다.(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http://www.steno.or.kr에 올라온 텍스트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협회뿐 아니라 50년간 한국속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사진과 글을 매개로 고스란히 옮겨져 있습니다.

또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3년을 이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이사장 4년차를 맞으며 저는 그동안 절감하지 못했던 시간의 무게와 함께 남은 임기도 우리 속기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협회의 작은 사업 하나 하나에 열정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져 봅니다.

올해에도 「속기계」가 발간됩니다. 벌써 44호째입니다. 그리고 16회째가 되는 속기학술세미나도 개최됩니다. 이렇게 우리 속기계의 역사는 쌓여 갑니다. 우리들은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서의 자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역사에도 눈길을 줘야만 합니다.

친애하는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올 한 해 집행부는 제헌국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정사의 현장에서 이룩한 속기문화의 공적을 잇고 또한 법원 지방의회 속기업계 등에서 속기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회원님들에게 자긍심과 힘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안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더욱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거기에 부응하겠습니다. 회원이 없는 집행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대한속기협회의 존재가치입니다. 올해에는 회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또 한 번 도약하는 대한속기협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각자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 장 김 창 진

## 이사회 소식

▷ **제206차 이사회**는 2007년 6월 1일 개최되어 ▲ 총무이사로부터 제40회 정기총회, 문화관광부 정 (1 , 2 ) ▲ , , , 자격심사위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학술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 선임의 폭을 넓힐 것, 속기 영역 주제 선정, 회원들 질의응답 시간을 늘려줄 것 등의 제안이 있었고 인터스테노 참가자 인선 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법 모색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 나항 부장임명의 건을 상정하여 사임한 김영중 홍보부장, 김미라 국제부장을 대신하여 유점임, 주정순 부장이 선임되었습니다. ▲ 다항 기타 의견으로 속기학술세미나에 많은 회원 참석 유도 방안, 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심사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제207차 이사회**는 2008년 1월 9일 개최되어 ▲ 총무이사로부터 2007년도 국고보조금 배정, 제15회 속기학술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인터스테노 총회, 속기경기대회 결과를 보고받고 ▲ 가항 제41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1월 24일 목요일에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 나항 2007년도 결산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결산보고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별 이의 없이 2007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다항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각 부의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듣고 자세한 내용 . ▲ 기타사항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 필요성, 속기경기대회와 시상식을 세미나 때 실시하자는 의견과 회원 경조사를 챙길 수 있는 방안 모색, 속기요금 인상 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2007년도 사업 결과 보고

▶ **제15회 속기학술세미나**가 수안보 한화리조트(충북 충주시 상모면 소재)에서 6월 8일~ 9일,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200명 회원들이 참석하여 강장석 국민대 교수, 최민수 국회사무처 문화관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의 주제발표를 듣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46차 인터스테노 총회**(2007년 7월 19일 ~ 7월 27일)에 본 협회에서는 홍은주 회원, 이현숙 회원, 유미형 총무부장, 오근순 사업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꾸준히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43호 **속기계**(2007년도판) 발송과 **소식지** 제16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제15회 속기경기대회**를 2007년 12월 21일 개최하여 입상자(금상 : 지성숙, 은상 : 조미래, 동상 : 신동선)를 선발하였습니다. 시상은 2008년 정기총회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회원 동정

승진

조영기(국회사무처) / 사무관 → 서기관(2007. 7)
김덕진 • 정명순 • 정순화(국회사무처) / 주사 → 사무관(2007. 4)
김영서(대구 달서구의회) / 7급 → 6급
이경진 • 조윤희(국회사무처) / 서기 → 주사보(2007. 7)
신재선 • 이연화 • 이현아 • 정숙(국회사무처) / 서기보 → 서기(2007. 8)

결혼

최완기(전남 장선군의회)
김영재(부산 사상구의회)
최혜연(국회사무처) / 2007. 4

파견복귀

최윤정(국회사무처) / 미 위스컨신 매디슨대 대학원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정기록1과(2007. 8)

파견

이순영(국회사무처) / 국립국어원(2007. 1)
이승철(국회사무처) / 미 조지메이슨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센터(2007. 3)
박대성(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2007. 7)

파견 연장

홍순관(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2007. 7)

복직

정영희(국회사무처) / 2007. 5 성지연(국회사무처) / 2007. 8 이미정(국회사무처) / 2007. 10

휴직

강은실(국회사무처) / 2007. 3 김학순(국회사무처) / 2007. 4 황은화(국회사무처) / 2007. 5
정향인(국회사무처) / 2007. 5 최영림(국회사무처) / 2007. 7

공로연수

고석광(국회사무처) / 2007. 7

퇴직

이근억(국회사무처) / 2007. 12

입사

기자영 • 김나영 • 이현정 • 채지희 • 최성향(국회사무처) / 2007. 1
권오정 • 손선락 • 신동선 • 이은영(국회사무처) / 2007. 7

## 신입 인사

# 삼세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권오정(2007년 국회 입사)

2006년 3차 면접시험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끝냈구나" 하는 생각에 무척 홀가분했다. '2년 노력 끝에 그렇게 소원하던 국회 의정기록과에 입사하는구나' '최종 발표 나면 여행도 하고 집에도 다녀오고 그동안 못 먹었던 술도 맘껏 마시며 철저하게 내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리라'……

면접을 본 후 다음날이 발표였다. 그날은 내가 떨어질 것을 미리 예언이라도 하듯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다. 나는 불합격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 '내 생애에 가장 기쁜 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하며 바로 몇 분 뒤에 있을 상황은 모른 채 들떠 있었다.

내가 직접 확인할 용기는 없었기에 1차·2차 시험에서도 그랬듯이 누군가가 전해 줄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얼마 후 걸려 온 전화 속 친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지 않기에 장난치는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고 찾아도 내 이름이 없다는 말을 듣고 믿기지가 않아 그때서야 부랴부랴 컴퓨터를 켰다. 친구가 봐서 없던 이름이 내가 봐서 있을 리가 없는데.

조금은 염두에 뒀던 1%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아니, 유난히 많이 뽑는 2006년 합격자 중에 왜 내 이름만 홀랑 빠졌을까?' 정말 믿기지 않아서 모니터가 뚫어져라 보고 또 보았다. 그렇게 2006년 두 번째 도전도 결국은 불합격으로 끝이 났다.

2005년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많은 걸 깨달았고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여유 있게 합격하겠지 싶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일은 늘 좋은 결과가 났고 재수(再修)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해 볼 생각도, 해 본 적도 없다. 국회 시험을 보며 처음 재수라는 걸 해 봤다. 그런데 또 떨어졌으니 삼수를 해야 되나? 정말 막막했다. 당연히 이번엔 될 줄 알고 그 뒷일은 생각도 안 해 봤는데 당장 뭘 해야 할지 답답했다.

내 자신은 내가 추스르면 되지만 우리 어머니는 어쩌나. 가장 미안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아들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제쳐 두고 챙겨 주시는 어머니는 어쩌나. 떨어졌다는 소식을 바로 전하지 못해서 저녁 늦게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나에게 실망을 하셨던지 내 전화를 끝내 받지 않으셨다. 가장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일을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했다. 아마도 '우리 아들이 국회 시험에 2차까지 합격했다'고 여기저기 말했을 것이다. 나도 그렇지만 어머니는 얼마나 더 기대를 하셨고 또 얼마나 실망이 크셨을까? 한번은 2차에서, 또 한 번은 면접에서…… 차라리 1차에서 떨어지는 게 나았을까?

다음날 은행을 갔다 오는 길에 통화가 되었다. 어제와는 달리 따뜻하게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은행 앞에 쭈그려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은행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

떨어지고 나서 보름 정도는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막막함과 떨어졌다는 자신감 상실로 세상 살기 싫어질 정도였다. 다시는 속기직에 응시하지 않을 거라 마음먹고 또 먹었다. 텔레비전에서 여의도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막방송에서 일은 했지만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국회는 내 길이 아니다. 아니다.' 자막방송이든 어디든 내 열정을 모두 쏟을 수 있는 곳에서 더 멋지게 생활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끝내지 않은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자막방송에서 꿋꿋이(?) 일을 하던 어느 날, 공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13명이나 뽑았는데 설마 또 공고가 나겠어? 설령 공고가 난다 하더라도 다시는 준비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건만 막상 공고가 나니 머릿속에는 시험날짜가 입력되고 시험날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표가 자동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또 안 되면 어쩌나 했던 불안감도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13명이란 실력자가 작년에 모조리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들어갈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2006년도에 4명이 떨어졌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 입사하라고 친절하게도 딱 4명 공고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2007년 시험, 삼수를 시작할 마음을 먹었다. 결정을 확실히 지은 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표를 내고 이제는 세 번째라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수험생 생활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내 사생활을 최대한 없애고 모든지 시험에 맞춰 내 자신을 움직였다. 단 한번도 '실패' '불합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입으로 내뱉지도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결과도 꼭 좋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라도 내 계획이 흐트러지면 내 자신이 싫어질 정도였다. '삼세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항상 용기를 주시던 원장님 말씀대로 07년도에 드디어 내 꿈을 이뤘다.

합격한 지 10일 만에 발령이 나서 교육을 받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의정기록1과에 온 지 6개월이 되어 간다. 온라인상에서만 보던 선배님들과 함께 일을 하며 배우는 게 꿈만 같을 때도 있지만 내 자신의 모자람을 많이 반성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한다.

나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물어본다면 난 정말 부끄럽다. 이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누가 뭘 시키든지 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꼭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과연 내가 내 자신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리 많은 거 같질 않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지난 3년간의 나의 노력과 그때의 다짐이 항상 변하지 않고 간직되기를.

<권오정 이은영 손선락 신동선>

# 공 지 사 항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납부를 기대합니다.

▲ 연 락 처 : 총무부 788-2374 유미형(총무부장)

788-3083 이봉선(재정부장)

▲ 회비납부 : 036-01-112844 농협중앙회국회지점 이봉선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회원부 788-3082 서현숙(회원부장)

홍보부 788-2471 유점임(홍보부장)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www.steno.or.kr

▷ **홍보부에서는 속기계(44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 사진, 연구논문, 속기실무, 수필, 회상기, 시, 기타 제언 등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유점임(tel 02-788-2471)에게 연락 주세요.

<제15회 속기학술세미나>